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이근무

(성균관대학교)

유은주

(원광디지털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 탈성매매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지속하려는 성매매 종사 여성들 9명을 대상으로 탈성매매를 저해하는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들을 규명하여 이들의 탈성매매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개입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수집은 심층면담과 문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코딩, 개념도출, 유사양상짜짓기(matching), 현상에 대한 설명구축 순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면접자료는 대화분석 방법으로, 문서자료는 텍스트 분석방법에 의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총 46개의 개념과 10개의 범주가 구성되었다. 이 범주들을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해석한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탈성매매 저해요인은 첫째,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둘째, 반동형성에 의해 만들어진 인생각본, 셋째, 불안에 기인한宿命론적 체념, 넷째, 자본재로서의 몸, 다섯째, 포주와의 공생모델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도울 수 있는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했다.

주제어: 성매매 종사 여성, 탈성매매, 유사양상짜짓기, 반동형성, 인생각본

1. 서론

지난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 전격적으로 시행되자 여성계는 물론 많은 사람들은 동법이 왜곡된 성문화와 접대문화를 바로 잡아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수준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인권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대거 집단 성매매 지대¹⁾에서 탈출하기는커녕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 시위를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돌발사태에 대해 일부 언론(내일신문, 2004)과 여성계 인사들은 이들이 실질적 예측관계에 있는 포주(pimp)들에 의해 강제동원 됐다는 스테레오티피 논조를 전개했다. 이것이야말로 언론과 식자층의 지적 독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주변 상황과 당사자들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분석과 논의를 거쳐 의견을 표방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자의적 준거틀로 살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주장을 획일적으로 판단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계문제로 성매매 여성이 자살을 하고(YTN TV, 2004) 자신들을 성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는 엄연한 또 다른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내의 언론과 식자들은 물론 연구자들마저도 이러한 현실을 줄곧 외면한 채 도덕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고답적인 주장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질을 외면한 채 부수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왔다고 할 수 있다.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 국내언론의 보도와 관계자들의 주장을 일견하면 성매매에서 탈출한 여성들의 성공한 성공사례(경향신문, 2004; 국정홍보원, 2004), 하수도론²⁾(세계일보, 2004),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³⁾(헤럴드 경제, 2004; 동아일보, 2004; 강원일보, 2004; 한경비즈니스, 2004), 성문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기회(동아일보, 2004) 등 자신들의 관점이나 이해, 또는 가치에 근거한 동일성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확장하여 이들을 자신들의 세계로 동일화하려는 시도만 농후할 뿐 당사자들의 경험세계와 성매매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교정하려는 실천적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성매매는 사회일반인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의 문제로 비쳐질 수 있겠지만 당사자에게는 온갖 사회적 편견과 비난, 그리고 신체, 정서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수행하는 처절한 생존의 방식이다. 따라서 이들을 법과 도덕의 잣대로 측정하기에 앞서 먼저 그들이 왜 그토록 집요하게 성매매에 매달리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성매매에 종사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한 채 집단 성매매 지대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는 9명의 성매매 종사 여성들을 심층 면담하여 성매매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밝히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실천적 노정을 통해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구체적 경험세계를 이해함은 물론 탈성매매와 사회복지를

- 1) 국내 언론과 관계자들은 집창촌(集娼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개념상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 온당치 않다고 사료된다. 첫째, 집창촌이라는 어의는 창녀들이 모여 있는 동네라는 뜻으로 성을 파는 사람들만 포함할 뿐 성을 사는 사람들은 제외되어 있어 성을 사고파는 성매매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둘째, 창(娼) 역시 노는계집, 갈보라는 어의를 지니고 있어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윤락행위등 방지법에서의 윤락녀(淪落女: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자)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성을 사는 자와 파는 자 양자를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적으로 객관성이 있고 또한 산업의 의미도 지니고 있는 집단 성매매 지대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 2) 하수도론이란 성매매 여성들을 남성들의 정욕과 욕망을 배출하는 하수도로 비하한 반인간적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 3) 경제계의 주된 관심은 성매매 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집단 성매매지대 주변의 지역경제 침체, 국내 총생산의 하락, 신용카드사들의 대부금 불회수로 인한 금융대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도울 수 있는 개입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검토

1) 성매매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급진적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은 사회문제는 물론 성매매 역시 남성의 가부장적 권력의 문제로 본다. 이들은 성매매와 인격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한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보통의 여성뿐만 아니라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 역시 '가부장제적 억압구조에 의한 피해자'라는 것이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이와 같은 결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 성매매란 모든 여성에게 가해졌던 성착취의 변형이라는 것이다. 가부장제하에서 여성의 몸은 착취의 대상이자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는 일종의 성적 상품으로 전락해 왔으며 성애를 위한 대상으로 보편화되었다(Barry, 1995)는 것이다. 둘째,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결정은 자의적 선택이 아니라 구조화된 사회, 경제적 압력에 의해 내적으로 강제된 것이라는 것이다. 현 경제구조는 남성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여성의 선택지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이러한 분석의 핵심이다. 특히 가난한 여성들은 대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쉽게 택한다는 것이다. 성매매 계약 역시 외견상으로는 포주와 여성간의 자유로운 의사합치처럼 보이지만 이는 형식적인 자유일 뿐 실제적으로는 불공정한 강제된 동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자연스럽게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자·포주에 대한 이분적 접근으로 귀결된다. 즉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임으로 처벌해서는 안 되고 성매수자와 포주는 성적 착취자임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분석에 근거하여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지속적 성매매행위를 분석하면 성매매 여성들의 결정은 구조화된 가부장적 억압구조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들을 성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는 집단행동 역시 일상의 권력 중 하나인 포주의 권력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개인을 구조로 환원시켜 그 속에 함몰시켰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행위자는 구조나 환경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렇다고 구조적 압력에 짓눌려 자기성을 전부 양도하는 구조의 꼭두각시는 아니다. 이는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사회복지학의 기본 가정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만일 상기와 같은 관점을 수용한다면 구조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강화시켜 주는 임파워먼트 전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2) 포스트 페미니즘

포스트 페미니즘의 성매매에 대한 견해는 데리다(Derrida)의 해체주의 전략을 차용하여 기존의 관습이나 질서를 부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해체적 시각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성매매에 대한 전통적 또는 윤리적, 사회적 가치들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성매매 여성을 성노동자(sex worker)로 지칭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을 정치, 문화적인 파르티잔(partisan)으로 격상시킨다.⁴⁾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을 담론의 객체가 아니라 담론을 생성하는 주체로 존중한다.

포스트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를 인격과 철저히 분리시키고 성매매를 일종의 해방구로까지 인식하기 때문에 이들은 성매매와 종사 여성들을 철저히 옹호한다. 이들은 성매매가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를 격상시킬 수 있고(Simon and Witte, 1982)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들의 자기결정권과 직업인으로서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Bell, 1994)는 주장을 전개한다.

이와 같은 관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의 본질과 현상, 그에 수반되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분석보다는 성매매 여성의 자유로운 활동을 규제하는 관습과 제도의 혁파에 관심을 집중한다. 포스트 페미니즘의 이론에 의하면 성매매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한 성매매 영역은 자신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결혼한 여성보다 더 당당한 자기성을 정초(定礎)할 수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고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첫째, 성(sexuality)을 단순한 자본재 내지 교환수단으로 전략시켜 성을 과도하게 물상화(物象化)시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회적 관계 맺음의 매개로서 성의 기능도 무시할 수 없지만 성은 자기내적 소통의 수단이자 통합의 기능도 있다. 이런 복합적 본질과 기능을 단순한 자본재로 환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포스트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 시장에 지속적으로 여성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차별적인 구조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국제 범죄커넥션에 의해 제3세계의 여성들이 경제 선진국의 지하시장으로 유입되는 현실과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에서조차 성매매 여성의 70~80%가 포주에 의해 통제되는 현실(Barry, 1995)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매매에 대한 지배적 담론인 급진적 페미니즘과 포스트 페미니즘 양자 모두는 자신들이 신봉하는 교조주의적 전범(教條主義的 典範)으로 살아 있는 인간들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삶을 설명하려는 우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구체적 행위자들의 현실세계에 실재수준(substantive level)으로 접근하여 이론의 기계적 적용이 아닌 이론의 생성을 통해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행위경향을 설명할 수 있는 실제이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4) 한국 역시 문화계 일각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새로운 변혁의 생성자로 보는 관점이 있다. 성매매 여성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기존 정치인과 유권자들의 허위의식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결국 승리하여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 대한민국 헌법1조(2003)는 포스트 페미니즘의 아방가르드(Avant-garde)적 사조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성매매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 검토

성매매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성매매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연구들(변화순·황정임, 1998; 여성부,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김은경, 2004)로 성매매의 형태, 성매매 종사자수, 성매매의 매출규모를 다루고 있다.⁵⁾

둘째는 청소년들의 음성적 성매매와 이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한 연구들(전대양, 2000; 김혜권·김명소, 2001; 심희기, 2002; 정규석·조정자·유순화, 2003; 유은주, 2005)로 전대양(2000), 김혜권·김명소(2001), 심희기(2002)는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특징, 유입동기, 사회정책적 대책 등을 다루고 있으나 대부분 법령자료집과 통계자료 등 2차문헌에 의거하고 있어 청소년 성매매의 단편적 실상을 알리는데 그치고 있다. 다만 정규석 외(2003)는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을 다체계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체계의 분류가 특정요인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유은주, 2005에서 재인용).

셋째는 성매매 여성의 인권침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형사·사회정책적 연구들(이경제, 1999; 송관재·이재창·홍영오, 2001; 천진호, 2002; 하태영, 2002; 하주영, 2002; 정진경·양계민, 2003; 조국, 2003; 고선영·양중희·이수정, 2004; 이정옥, 2004; 최병일, 2004; 권혜택, 2004; 김현숙, 2005; 허경미, 2005; 이호용, 2005)로 국내 성매매 연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성매매 유입원인, 경로, 재유입 방지책,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성매매 현장에서 자행되는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체·정서·경제적 착취 및 이와 관련된 범죄 등을 다루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와 정책개선을 제언하고 있으나 특정 학제의 교의(敎義) 내지 사회 일반인들의 가치관을 기초로 접근하고 있어 당사자들의 생활세계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탈성매매를 지원할 수 있는 실천적 연구들(변화순·황정임·허나윤·최은영, 2002; 변화순, 2005)이 있는데 이들 연구는 탈성매매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나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존하여 집단 성매매 지대에 머물고 있는 여성들의 특수한 환경적 맥락과 구체적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연구들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실태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제고 등에는 일정부분 기여했으나 주로 단편적인 양적연구와 이론적인 담론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성매매 여성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최근에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 탈성매매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방법론을 통

5) 이들은 성매매 형태를 성매매를 일차적 목표로 하는 전업형 성매매, 유흥주점이나 마사지업소 등 주업 외에 음성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산업형 성매매, 그리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매개로 성매매를 하는 개인형 성매매로 구분하였다.

2002년 현재 전국의 성매매 종사 여성은 약 33만명으로 추산되며 성매매 산업관련 매출은 직접 매출(18조 3천억원)과 관련 산업 매출을 합쳐 총 24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1%를 차지한다.

해 이들의 실제경험세계로 들어가 탈성매매를 저해하는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은 외부에의 노출을 극히 꺼리기 때문에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사용했다. 이는 연구자가 어떤 관련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례나 현장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Schwandt, 2001). 이러한 표집방법은 성매매 여성들과 같은 희귀하거나 익명성을 요구하는 모집단을 연구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연구자들은 경기도 D시와 P시, 서울의 C동과 J동, 인천의 S동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연구참여 집단은 눈덩이 표집방법에 의해 구성되었다. 먼저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특수 선교활동을 해온 A목사를 통해 한 명의 성매매 종사 여성을 소개받았고, 이 사람을 통해 또 한 사람의 참여자를 소개받는 식으로 해서 D시에서 2명, P시에서 3명, 서울의 C동에서 1명, J동에서 2명, 인천의 S동에서 1명, 총 9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했다.

2) 자료수집 방법

질적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심리측정 도구나 설문지, 면접, 비표준화된 조사, 관찰, 인공물, 문서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데(김운옥·김성혜·김은경·신경숙·신경일·정명화·허승희·황희숙, 2001)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과 문서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1) 심층면담

면담에는 계획적인 표준화 면담, 무계획적인 표준화 면담, 비표준화된 면담의 유형이 있는데(Goetz and LeCompte, 1984) 본 연구에서는 비표준화 면담을 했다. 이는 연구자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일천하고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면담은 2004년 12월 6일부터 2005년 5월 16일까지 이루어졌다. 면담장소는 커피숍과 찜질방이었다. 면담은 각 연구참여자당 4회였고 1회당 평균 60~70분이 소요되었다.

(2) 문서

문서는 비상호작용적인 요소가 강하고 반응성이 없지만 연구자로 하여금 친숙해진 연구현장과 참여자로부터 벗어나 객관적 위치에서 개별상황을 파악하고 추리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의 적금통장(참여자 5), 학창시절 받은 표창장(참여자 3), 세례증명서(참여자 2), 온라인 송금 영수증(참여자 6), 자녀가 보낸 편지(참여자 8)의 복사본을 수집했다.

3) 자료분석 절차와 방법

(1) 자료분석 절차

분석은 ① 코딩→② 개념도출→③ 유사양상 짝짓기(matching)→④ 현상에 대한 설명 구축 순으로 이루어졌다.

코딩은 분석의 첫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일단 잠정적 범주를 설정한다. 이를 위해 원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휘, 개념, 주제 등을 추출하여 여기에 일정한 코드를 부여한다.

개념도출은 코딩과정에서 설정된 잠정적 범주를 상호관련된 요소들과 지속적으로 비교, 검토한 후 이해 가능한 이름을 부여(nominal)하는 것이다.

유사양상 짝짓기는 도출된 여러 개념들 중 유사하거나 또는 의미상 관련 있는 것들을 결집하여 범주화하는 것이다.

현상에 대한 설명구축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얻은 범주와 그 밖의 사례, 증거 등을 결합하여 연구하는 현상에 실제적 이론을 구축하는 것이다.

(2) 자료분석 방법

면접자료는 대화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문서자료는 텍스트 분석 방법을 사용했다. 텍스트란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 동기, 사고, 계획 등이 담겨 있는 가시적 형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구자들은 행간의 숨은 뜻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했다. 적금통장의 예를 들면 텍스트 분석에서는 적금의 액수나 불입기간 등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참여자의 삶에 대한 태도, 미래에 대한 의지와 준비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4) 연구의 엄밀성

질적 연구의 엄밀성(rigor)이란 질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분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Lincoln and Guba, 1985).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원화, 연구참여자를 통한 재확인, 감사자료의 보존 전략을 사용했다.

(1) 다원화

다원화란 하나의 현상에 대해 포괄적인 자원을 총동원하는 것을 말한다(Denzin, 1978). 본 연구에서는 복수(2인)의 연구자 외에도 사회복지학 교수 1명, 여성학 교수 1명,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생 2명이 방법론 선택,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의 전과정에 참여하여 자문을 했다.

(2) 연구참여자를 통한 재확인

이는 연구자가 수시로 연구현장이나 연구참여자에게로 되돌아가 자신의 연구가 방향성을 상실하였는지, 연구자의 편견이 작용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연구참여자를 통해 점검하고 재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자료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거나 연구자들의 주관성에 의심이 생길 때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다시 만나 이를 점검하고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3) 감사자료 보존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연구의 재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메모, 연구계획표, 연구참여자와의 면담녹취록, 현장기록을 남겼다.

4. 연구결과

1)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는 2005년 5월 현재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9명의 여성이 참여했다. 연구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참여자	연령 (세)	거주지	학력	혼인상태	자녀	종교	월수입 (만원)	성매매 경력(년)	성매매 이전 직업
참1	28	서울	고퇴	미혼	무	무	300	3	다방종업원
참2	32	경기	중졸	사별	2남	기독교	250	5	주부
참3	24	서울	고졸	미혼	무	무	350	2	점원
참4	26	인천	고졸	미혼	무	무	300	2	무
참5	35	경기	중중퇴	미혼	무	불교	200	7	섬유업체 생산직사원
참6	22	서울	중졸	미혼	무	무	350	1	무
참7	24	경기	고퇴	미혼	무	무	300	3	다방종업원
참8	33	경기	중중퇴	가출별거	1녀	무	200	3	주부
참9	21	경기	고퇴	미혼	무	무	270	1	무

2) 코딩

원자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 주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 및 빈도

어휘	빈도	코드	어휘	빈도	코드
보호	13	I -1	들러리(열외)	13	I -17
정부(국가)	14	I -2	미래(장래, 앞날)	9	I -18
포주(사장)	21	I -3	관리(통제)	7	I -19
경찰(잡새)	9	I -4	여자	16	I -20
부녀보호소	8	I -5	몸뽕이(몸)	23	I -21
단속	24	I -6	남자	11	I -22
인권	17	I -7	빽	14	I -23
도덕	15	I -8	돈(전, 오까네)	17	I -24
가족(식구)	18	I -9	법	12	I -25
교도소(빵)	4	I -10	뒷배(배경)	9	I -26
도망(하이방)	7	I -11	팔다	18	I -27
건달(조폭)	11	I -12	사다	15	I -28
단독 (독고다이, 프리)	8	I -13	결혼(동거)	7	I -29
안전	13	I -14	섹시	12	I -30
여성부	6	I -15	와리(갈취, 보호비)	9	I -31
선전(나발)	7	I -16	인간대접(대우)	6	I -32

*괄호는 유사한 의미를 지닌 어휘

〈표 3〉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 및 빈도

주제	빈도	코드	주제	빈도	코드
보호정책	4	Ⅱ-1	포주와의 공생	6	Ⅱ-11
포주권력	6	Ⅱ-2	이면세계의 질서	5	Ⅱ-12
법의 사각지대	3	Ⅱ-3	보호와 착취의 딜레마	4	Ⅱ-13
편파적 행정	2	Ⅱ-4	몸을 담보로 한 생존	3	Ⅱ-14
불법행위	3	Ⅱ-5	성적 매력의 교환	6	Ⅱ-15
여성부 혐오	4	Ⅱ-6	국가 간섭	3	Ⅱ-16
현실적 생존	6	Ⅱ-7	관리 거부	9	Ⅱ-17
사회적 이용물	5	Ⅱ-8	자기 도덕성의 확신	2	Ⅱ-18
도덕성에 대한 이중잣대	4	Ⅱ-9	시대에 뒤떨어짐	3	Ⅱ-19
희망의 상실	3	Ⅱ-10	선택의 여지없음	5	Ⅱ-20

〈표 2, 3〉과 같이 자료를 체계화한 후 개념도출의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는 잠정적 범주를 설정했다. 잠정적 범주와 코드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4〉 잠정적 범주 및 관련코드

잠정적 범주	관련 코드	
믿을 수 없는 정부	I -1, I -2, I -5	Ⅱ-1, Ⅱ-3
잘못된 행정처분을 목도한 경험	I -4, I -6, I -25	Ⅱ-4, Ⅱ-5
여성부 관계자들에 대한 불신	I -15, I -16, I -17	Ⅱ-6, Ⅱ-8
국가 간섭에 대한 저항	I -7, I -8, I -19	Ⅱ-9, Ⅱ-16, Ⅱ-17, Ⅱ-18
포주에 대한 감정	I -3, I -9, I -10, I -11, I -13, I -14, I -31	Ⅱ-2, Ⅱ-11
통제의 인용(忍容)	I -12, I -26	Ⅱ-12, Ⅱ-13
마지막 남은 몸	I -20, I -21, I -22, I -23, I -24, I -27, I -28, I -30, I -32	Ⅱ-7, Ⅱ-14, Ⅱ-15
안주하고 싶음	I -18, I -29	Ⅱ-10, Ⅱ-19, Ⅱ-20

3) 개념도출

개념: 정부의 보호정책에 대한 회의

“나라에서 우리 같은 X들을 언제까지 봐줄 것 같아요. 돈 빌려서 가게 차렸다고 해도 그때 포주가 나타나면 어떡해요. 나라에 빚만 지는 거지.. 이 세계는 법이 통하지 않아요”. [참여자 5]

개념: 성매매 업주의 집요함에 대한 두려움

“포주한테 빚이 있어요. 근데 포주가 그걸 포기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지옥에라도 쫓아와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참여자 9]

개념: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는 인식

“포주한테 빌린 돈 법적으로는 안 갚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건 바깥 사람들 얘기죠. 나나 포주들이나 법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예요”. [참여자 1]

개념: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

“내가 ○○○에 있을 때 아는 언니가 칼에 찔려 죽었어요. 형사들 몇 번 왔다갔다하다 그만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졌겠어요. 여기서 나가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요”. [참여자 4]

개념: 편파적 행정처리를 목도한 경험

“옛날에 아가씨가 도망가다 잡혔어요. 그럼 둘다 잡아가야 되는데 아가씨만 부녀보호소에 갔어요”. [참여자 8]

개념: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

“법만 바뀌면 뭘해요. 사람은 똑같은데 그 전에 여기서 도망치면 포주가 경찰에 신고해요. 그럼 경찰은 돈 떼먹고 도망갔다고 집어 넣어요”. [참여자 5]

개념: 단속공무원들의 불법행위 경험

“여기 담당하는 애들한테 몇 번 쫓았어요. 업주가 돈도 쫓았죠. 그런 놈들이 단속하러 나오니까 개가 웃을 일이에요”. [참여자 6]

개념: 자신들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고 여김

“지들은 부모, 남편 잘 만났으니까 그 X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참여자 2]
 “우린 여자 노가다야. 몸으로 때우는 거지. 하지만 가진 것 없는 년이 이 짓 밖에 더하겠어요. 돈 있고 배웠으면 안하죠. 우리보고 쉽게 돈벌라고 그런다는데 확 헛바닥을 뺏아버리고 싶어요”. [참여자 8]

개념: 현실적 생존을 우선시함

“우리들 인권 어찌고 하는데 배고픈데 무슨 인권이야. 여성부X들이 우리 인권을 더 무시하는 거 알죠. 같은 여자로서 우리 같은 X들이 있는 게 창피한 거지”. [참여자 4]

개념: 정책입안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소외감

“성 무슨 법 만들 때 그 여자들이 우릴 한번이라도 찾아온 줄 알아요.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면 우리 이야기 들어야지 지들 멋대로 똑딱해서 만들고..” [참여자 8]

개념: 여성계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고 여김

“거기 X들은 꼭 지들 편한 대로만 얘기해요. 포주들한테 강제로 끌려서 데모에 갔다면 기자하고 꿈(경찰)들이 천지 빼가런데 거기서 도와달라면 되지, 아무 것도 모르는 X들이 통박만 굴려요”. [참여자 5]

개념: 여성부의 정책을 탁상공론이라 여김

“여성부 애들이 우릴 사람 취급하면 여기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한 번 이야기 해보자고 그래요. 책상에서 지랄들 하지 말고..” [참여자 1]

개념: 여성계의 들러리 신세라는 자괴감

“우린 여차피 들러리야. 그 전에 ○○경찰서장 하던 여자 여기 단속하다 유명해져 가지고 국회의원 출마했잖아”. [참여자 3]

개념: 유명세를 얻기 위한 이용물이라는 인식

“불쌍한 사람들 이용해서 돈버는 사람 많잖아요. 이젠 이용해 먹을 사람이 다 떨어지니까 우릴 이용할라고 하는 거지. 좀 있으면 창녀들의 대부니 대모니 하는 것들이 나타날거야”. [참여자 7]

개념: 국가의 간섭에 대한 거부

“이 놈의 나라가 우릴 낳아준 건 아니잖아. 내 몸은 내건데 XX놈들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해”. [참여자 2]

“참 웃기는 짬뽕이야. 정신대 할머니 보상도 못해주는 나라가 우리까지 관리하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우린 우리끼리 살테니까 제발 내버려두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7]

개념: 자신의 인생각본 대로 살려는 의지

“부모도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낳아서 키워준 부모도 뭐라고 못하는데 지들이 뭐야. 우리는 열외(列外)이지만 나는 나대로 인생이 있어요. 달라고 하지 않을테니까 우리보고 뭐 하라고 하지 말란 말이야”. [참여자 5]

“이 짓 남들은 욕하겠지만 내 스스로 결정한거예요. 내가 결정했으니까 책임도 내가 져요. 우린 우리대로 사는 방식이 있는데 지들이 우리 인생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참여자 9]

개념: 관리대상으로 설정된 것에 대한 거부

“우린 관리대상이 아니잖아요. 도둑질하는 것도 아닌데 피해주는 것 아무 것도 없어요. 내 방

식대로 살겠다는데 국가가 개뿔이나 뭐 해준 게 있다고 지금 난리를 쳐, 참 개 빨 뜯어 먹는 소리지”. [참여자 8]

“XX 이젠 할 것이 없어서 나라가 우리 아랫도리까지 관리하려고 그래. 부동산 투기하는 년놈들, 일도 안하고 돈만 타가는 정부미(공무원)들이나 관리 잘하라고 그래” [참여자 6]

개념: 자신의 행위에 도덕적 정당성 부여

“도덕이 뭐예요. 남한테 피해 안주고 노력한 만큼 버는 거잖아. 쏘타임에 육만원 이거 보다 정직한 게 어디 있어. 우리가 국회의원 XX들처럼 일도 안하고 돈을 버나, 부동산 투기해서 집값을 올려 놓았나..” [참여자 1]

개념: 국가의 선전용이라는 인식

“왜 우리가 도덕적인 나라 선전용이 돼야 해요?”. [참여자 4]

“지들이 언제부터 우리 인권을 챙겨줬다고, 난 무식해서 인권인지 나발인지 모르지만 제일 더러운 나라가 청소도 안하고 우릴 이용해서 깨끗한 나라가 될려고 하는 게 참 웃기지”. [참여자 7]

개념: 포주에 대한 미운 감정이 희석됨

“처음엔 엄마(여성 성매매 업주)가 밉지. 몸이 안 좋아 손님을 못 받으면 구박도 하고, 근데 같이 먹고 자다보니까 나중엔 미운 생각도 안 들어요”. [참여자 1]

개념: 가피학적 공생관계

“뭐 우리나라 맨날 남편한테 쥐어 터지는 여자나 똑같지. 맞으면서도 끈질기게 사는 여자나 우리나라 같아요”. [참여자 4]

개념: 오랜 동거로 인해 형성된 정서적 유대감

“미운 정 고운 정 이라는 게 그런거지요. 텔레비 보면 미용실에 갈 때도 감시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거다 뻥이야. 처음에만 그렇게 한군데 오래 있으면 정들어요. 그전에 뻥살이(수감생활) 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살다보면 간수나 도둑년들이나 나중엔 똑같아져”. [참여자 8]

개념: 의사(擬似) 가족관계의 형성

“도망갈라면 골 백 번도 더 갔지요, 도망가도 갈 데도 없고 여기가 편해요. 이젠 사장(성매매 업주) 애들하고도 언니, 동생하고 지내요”. [참여자 6]

“그 전에 엄마(여성 성매매 업주) 애가 학교급식 당번에 걸렸는데 내가 대신 갔죠. 그래도 애는 좋아해요. 젊으니까 차리고 나가면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지들이 아냐”. [참여자 2]

개념: 포주가 옥바라지를 해줌

“나 교도소에 있을 때 면회온 건 엄마(여성 성매매 업주)하고 우리 아가씨들 밖에 없었어요. 부모도 버린 년인데..나 봐줄 사람은 여기 밖에 없어요”. [참여자 8]

개념: 포주와의 공통적 경험 공유

“우리 여사장도 여기 출신인데 돈 벌었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포주네 뭐 착취

하네 어찌고 하지만 우리 이해해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밖에 없어요. 지나 내나 부모 잘못 만나 이 길로 빠졌는데 뭘..” [참여자 4]

개념: 가족의 형사문제를 해결해줌

“동생놈이 사고쳤는데 사장이 합의 봐주고 빼줬지. 집에는 할머니 밖에 없는데 우리 식구 도와 준 건 사장뿐이야요”. [참여자 3]

개념: 포주를 통해 대리복수를 한 경험

“진짜 꼭 담그고(칼로 깊이 찌름) 싶은 놈이 있었는데 사장한테 말하니까 사장이 애기들(폭력 단 하수인) 시켜서 몇 칼 먹였어요”. [참여자 9]

개념: 갈취관계를 공존의 규칙으로 인식

“세상은 서로 다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예요. 연예인들도 매니저한테 와리(수수료) 주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봐주고 손님 연결시켜 주니까 돈 내는 거 당연하죠”. [참여자 5]

개념: 경제적 신용획득이 가능함

“여기선 카드 없어도 돼요. 다 외상으로 돼요. 일수도 되고 사장이 책임지니까 우리 같은 X들이 어디 단돈 백만원이라도 빌릴 수 있나”. [참여자 4]

개념: 분업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 추구

“단속한다고 포주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안돼. 우리 혼자 독고다이(단독) 하는 것 보다 포주가 있으면 훨씬 편해. 나 혼자 손님 찾아서 받는 것 보다 물어다 준 손님 받는 게 쇼부가 빨라요”. [참여자 8]

“우리가 혼자 손님을 받으면 손해예요. 하루에 한 사람 받기도 힘들어요. 포주한테 떼 주는 게 이익이야”. [참여자 7]

개념: 포주의 능숙한 뒤처리

“우리 사장은 말이 넓어요. 옛날에 건달 생활도 했고, 파출소에서도 한 수 접어줘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빼주죠”. [참여자 6]

개념: 단독 성매매시의 위험 인지

“프리(포주 없이 단독으로 성매매 하는 여성)로 뛰는 애들 있는데 개들은 위험해요. 돈 못 받을 때도 있고 변태 같은 놈들 만나면 고생만 하죠”. [참여자 5]

개념: 포주의 보호를 통한 안정성 확보

“유영철이한테 죽은 애들 다 혼자 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은 X들 없어서도 눈 하나 깜짝 안해요. 여기가 안전해요. 다 봐주니까”. [참여자 1]

개념: 포주의 뒷배를 믿음

“그 전에 한 번에 삼십 만원 주겠다는 XX가 있었는데 그런 놈들 뻘해 다 변태지. 그치만 걱정

할 건 없어요. 돈은 선금으로 받았겠다 적당히 하다 안 되면 그만두면 돼지. 여기서 갱판쳐 봤자 지만 손해지. 나 혼자였으면 그렇게 못했을거야요” [참여자 4]

“술직히 제약은 많죠. 그 대신 손님관리를 다해줘요. 이 것이 쉬운 줄 아는데 위험이 많아요. X 값 못 받는 것은 고사하고 목숨이 위험할 때도 많으니까..” [참여자 9]

개념: 여자는 생존이 용이하다고 여김

“집 나오면 남자들은 노숙자지만 여자는 민중(주민등록증) 하나만 있으면 어디가든 먹고는 살아요. 좀 잘 빠졌으면 편하게 돈도 벌고..” [참여자 9]

“난 참 잘 대웠어요. 남자들이 왕촌데 주면 여러 가지로 편했어요. 몸뚱이도 뺄 못지않게 약발이 먹히더라구요”. [참여자 7]

개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이 중요하지 않음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되지 뭘.. 돈이 양반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내가 한 수십 억 있다고 쳐봐요. 나 데려갈 남자들 줄 설거예요”. [참여자 8]

개념: 상품가치를 지닌 몸에 대한 기대

“난 잘 팔리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나이들면 어떻게할거냐구 오십, 육십이 되도 하는 여자들 있어요. 어차피 기댈 건 몸뚱이 하난데”. [참여자 2]

“여자는 늙어도 빈털터리라도 먹고 살아요. 정 안되면 늙은이한테 시집가도 되고 종묘 같은데서 노인네 상대로 해도 되고 늙은이들은 빨리 X니까 더 쉽죠”. [참여자 5]

개념: 성매매 이외에는 대안이 없음

“쉽게 돈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요. 하룻밤에 열댓명씩 받아봐. 그게 쉬운 일인가. 술 먹은 놈은 양반이라고 할 수 있지. 팔 없는 놈, 장님, 별별 놈이 다 걸려요. 비밀 언덕이라고는 몸뚱이 밖에 없으니까”. [참여자 6]

“비야그라 먹고 오는 놈들도 있어요. 오래 할려고 그런 놈 서넛만 대줘봐. XX 팔 수 있는 거라곤 XX 밖에 없으니까 XX만 파는 거지”. [참여자 4]

개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대한 확신

“찾는 사람이 있으면 주는 사람도 있는 거지. 이게 언제는 불법이 아니었나요. 그래도 우리 수입에는 지장이 없어요. 값이 뛰니까 다섯 명 받을 때 두당 육만원 만나, 세 명 받을 때 두당 십만원 만나 또이또이 하니까”. [참여자 1]

개념: 모든 것을 교환관계로 환원

“어차피 다 자기 것 팔아먹고 사는 거지. 머리 좋은 놈은 머리 팔아먹구, 난 몸 밖에 없으니까 몸 파는 거지. 그나마 돈도 뺄도 없는데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다행이지”. [참여자 3]

개념 : 성적 매력을 파는 것은 동일하다고 여김

“○○○가 옷 벗고 춤춰서 돈 버는 거나 우리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섹시하지 않으면 PD들이 겔 쓰겠어요. 노래도 못하는데 지나 나나 몸이 재산이고 몸 파는 건데”. [참여자 3]

“XX 판다고 우습게 보겠지만 상관 안해요. 얼굴 이쁜 애들이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가는 거나 우리나라 똑같지 뭐. 여기서도 이쁜 애들이 더 잘 팔려요. 모든 여자는 다 그런거지”. [참여자 5]

개념: 성과 금전의 즉물적 교환

“남자들이 우리를 인간 대우 해주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도 안하니까.. 뭐 서로 즐게 있으니까 바꾸는 거지. 회사 사장은 직원한테 인간적이라 돈 주냐, 일하니까 주는 거지”. [참여자 1]

개념: 심각한 문화지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컴퓨터도 모르고 새로 배워야 하는데 운전도 못하고 이 나이에 쉽지 않죠. 컴퓨터 시대인데 난 석기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참여자 2]

개념: 미래에 대한 운명론적인 체념

“장래 어찌구 저찌구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 하고 인연 없이 살았어요. 여기 있으나 새로 시작 하나 어차피 꼬인 인생이 뭐 달라지겠어요”. [참여자 3]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예쁜이 수술하고 좋은 남자 만나 살고 싶은 생각도 해봐요. 근데 그게 될 것 같질 않아요. 부모복 없는 년이 남편복은 있겠어요”. [참여자 8]

개념: 부정적 사회적 위치에 기인한 예기(豫期)불안

“솔직히 남편은 안 무서울 것 같아요. 남자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X달린 놈들은 똑같으니까.. 제일 걱정되는 건 자식이죠. 만약에 나중에 지엄마가 무얼했는지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시집갈 생각 같은 건 아예 안해요”. [참여자 7]

개념: 배우자에 대한 기대 포기

“다 끼리 끼리 만나는 건데 나 같은 년한테 돌아올 남자가야 뻥한거고 동시패션으로 지지리 공상 떨건 뻥한데 여기 있던 언니들 시집간 사람도 있는데 다 별 볼일 없어요. 노름꾼에다 약쟁이(약물중독자)들 뿐이더라구..” [참여자 2]

4) 유사양상 짝짓기(matching) : 범주화

(1) 사후보호에 대한 회의적 시각

‘정부의 보호정책에 대한 회의’, ‘성매매 업주의 집요함에 대한 두려움’,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는 인식’,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은 「사후 보호에 대한 회의적 시각」으로 결집(結集)했다.

(2) 피해의식

‘편파적 행정처리를 목도한 경험’,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 ‘단속공무원들의 불법행위 경험’은 「피해의식」으로 결집했다.

(3) 여성정책결정권자들에 대한 반감

‘자신들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고 여감’, ‘현실적 생존을 우선시함’, ‘정책입안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소외감’, ‘여성계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고 여감’, ‘여성부의 정책을 탁상공론이라 여감’, ‘여성계의 들러리 신세라는 자괴감’, ‘유명세를 얻기 위한 이용물이라는 인식’은 「여성정책결정권자들에 대한 반감」으로 결집했다.

(4)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추구

‘국가의 간섭에 대한 거부’, ‘자신의 인생각본 대로 살려주는 의지’, ‘관리대상으로 설정된 것에 대한 거부’, ‘자신의 행위에 도덕적 정당성 부여’, ‘국가의 선전용이라는 인식’은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추구」로 결집했다.

(5) 포주와의 심리·정서적 유착

‘포주에 대한 미운 감정이 희석됨’, ‘가피학적 공생관계’, ‘오랜 동거로 인해 형성된 정서적 유대감’, ‘의사가족관계 형성’, ‘포주가 옥바라지를 해줌’, ‘포주와 공통적 경험 공유’, ‘가족의 형사문제를 해결해 줌’, ‘포주를 통해 대리복수를 한 경험’은 「포주와의 심리·정서적 유착」으로 결집했다.

(6)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연합

‘갈취관계를 공존의 규칙으로 인식’, ‘경제적 신용획득이 가능함’, ‘분업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 추구’는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연합」으로 결집했다.

(7) 통제와 위험경감의 교환

‘포주의 능숙한 뒤처리’, ‘단독 성매매시의 위험인지’, ‘포주의 보호를 통한 안전성 확보’, ‘포주의 뒷배를 믿음’은 「통제와 위험경감의 교환」으로 결집했다.

(8) 마지막 생존 수단인 몸에 대한 집착

‘여자는 생존이 용이하다고 여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이 중요하지 않음’, ‘상품가치를 지닌 몸에 대한 기대’, ‘성매매 이외에는 대안이 없음’은 「마지막 생존 수단인 몸에 대한 집착」으로 결집했다.

(9) 물상화된 관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대한 확신’, ‘모든 것을 교환관계로 환원’, ‘성적 매력을 파는 것은 동일하다고 여감’, ‘성과 금전의 즉물적 교환’은 「물상화된 관계」로 결집했다.

(10) 과거에 얽매임

‘심각한 문화지체’, ‘미래에 대한 운명론적인 체념’, ‘부정적 사회적 위치에 기인한 예기불안’, ‘배우자에 대한 기대 포기’는 「과거에 얽매임」으로 결집했다.

위와 같은 개념들의 결집을 그 차원에 따라 개인적/심리적 차원, 구조적/정책적 차원으로 범주화했고, 대상에 따라 성매매 당사자, 일반인/성매수자, 중간알선자(포주), 행정/정책관련자, 정책/서비스 문제로 범주화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차원에 따른 범주화

차원	개념들의 결집
개인적/심리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의식 •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추구 • 포주와의 심리/정서적 유착 • 마지막 생존수단인 몸에 대한 집착 • 물상화된 관계 • 과거에 얽매임
구조적/정책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보호에 대한 회의적 시각 • 여성정책결정권자들에 대한 반감 •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연합 • 통제와 위험경감의 교환

〈표 6〉 대상에 따른 범주화

대상	개념들의 결집
성매매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의식 • 과거에 얽매임
일반인/성매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지막 생존수단인 몸에 대한 집착 • 물상화된 관계 •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연합
중간알선자(포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주와의 심리·정서적 유착 • 통제와 위협경감의 교환
행정/정책관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추구 • 여성정책결정권자들에 대한 반감
정책/서비스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보호에 대한 회의적 시각

5) 현상에 대한 설명 구축

연구참여자들이 성매매에 고착된 원인은 전절의 유사양상 짝짓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개의 개념들의 결집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1) 개인적 요인

① 반동형성(Reaction-formation)에 의해 만들어진 인생대본(Life-script)

연구참여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자신들이 쓴 인생대본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했다. “남에게 피해 안주고 일할 만큼 버는 것”(참여자 1)을 도덕이요, 윤리라 믿고 있었다. 금전을 매개로 한 성행위에 대한 일반적 비난에 대해서도 “어차피 모든 여자는 창녀예요. 결혼한 여자는 전속 창녀고 우리 같은 X들은 프리랜서”(참여자 3)라고 항변했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자국민을 총으로 학살하고 세계평화, 국익이라는 미명아래 약소국에 군대를 보내는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전국도를 투기장으로 바꿔놓은 부유층이나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보다 자신들이 훨씬 정직하고 윤리적(참여자 5, 7, 8의 진술을 연구자들이 요약)이라는 주장도 폈다.

연구참여자들의 이 같은 주장은 언뜻 보기에는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구비한 신념체계라 할 수 있다. 이는 성매매 종사 여성을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보고 기존 가치들을 변화시키는 급진적 민주주의자(Bell, 1994)로 보는 포스트 페미니즘의 논조와도 결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 모두는 성매매를 하는 자신들에 대해 심한 자괴감과 증오를 표현했다. “아주 가끔은 아무도 몰래 교회에 가는데 기도는 못해요. 그냥 울다가만 와요. 내 처지가 슬프기도 하지만 죄책감이 더 커요”(참여자 2), “나 같은 년 왜 낳았는지 몰라요”(참여자 5) 등의 진술은 이들의 자기모멸감과 자책감을 시사

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상반된 자기평가는 결국 반동형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매매 행위에 대한 세인들의 비난과 자신들에 대한 증오와 자책감이 정반대의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쓴 자신들의 인생대본은 주체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반동형성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불안에 기인한宿命론적 체념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성매매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해서 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방치하거나 변화를 모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목돈마련 저축, 간헐적인 교회출석 등 각자의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성매매 지대 바깥은 물리적 개념으로서의 공유할 수 있는 곳이지만 정서적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곳이다. 이런 심리적 간극이 생성된 이유로는 첫째, 심각한 문화치체 현상을 들 수 있다. “컴퓨터 시대인데 난 석기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참여자 2)라는 진술처럼 보통의 사회구성원들이 생존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사회적 기능의 많은 부분을 습득하지 못했거나 상실했기 때문에 성매매 지대 밖에서의 생존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운명론적인 체념과 예기불안을 원인으로 거론할 수 있다. 이들은 현재에는 과거가 용해되어 있고 미래도 잠재되어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어 미래 역시 현재의 단순한 연장일 것이라는 예단에 빠져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예단은 현재의 실존양식을 수정하려는 그들의 희미한 의지마저 희석시켜 그들로 하여금 세계와 미래를 부정적인 가정으로 구조화하게 만든다. 사회는 지속적으로 자신들을 패배자로 만드는 곳이고 미래 역시 차별과 실패의 경험만을 안겨다 줄 것이라는 예기불안은 “부모복 없는 년 남편복도 자식복도 없다”(참여자 8), “다 끼리끼리 만나는 건데 동시패션으로 지지리 공상팔건 뻘한데”(참여자 2)라는宿命론적 체념으로 귀결된다. 이런 체념은 결국 현재에 집착하게 하고 ‘현상유지’라도 좋으니 지금의 상태가 계속 연결되는 것이 최상이라는 인식을 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2) 구조적 요인

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 정부의 탈성매매 지원책이 발표되었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정부의 보호, 지원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여성부 정책결정권자들에 대한 반감, 편파적 행정처분을 목도한 경험, 성매매 업주에 대한 두려움,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자기비하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여성부의 정책이 자신들이 실정과 현실적 생존을 고려하지 않고 다만 여성부 정책결정권자들의 가치와 윤리기준 등이 투사된 관념의 가공물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또한 여성계 인사들이 정치적, 사회적 권력 획득을 위한 들러리, 선전용이라는 시각을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우리들은 여성계 X들의 전리품”(참여자 4)이라는 자조적인 진술은 이들의 인식을 응변으로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성부 및 여성계 인사들에 대한 정서적 반감에 대한 반작용이 성매매 의지를 유지,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부(계)로 상징되는 정부에 대한 기저적 수준에서의

불신이 팽배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은 편파적 행정처분을 목도한 경험과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가치 없다는 비하감을 통해 구체화된다.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성매매에서 탈출한다고 하더라도 포주의 집요한 추적과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여기서 도망가서 잘 사는 X들 별로 없어. 위는 38선이고 사방이 바다데 지들이 뛰어봤자지. 우리들 정보망은 정보부 저리 가라야”라는 성매매 업주의 진술을 고려해 볼 때 연구참여자들이 느낀 불안은 단순한 예기불안 수준이 아니라 체감불안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고 성매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국가를 “악세사리”(참여자 5)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더욱이 그들이 성매매 현장에서 목도한 단속공무원들과 성매매 업주와의 유착(참여자 6), 성매매 여성 피살사건에 대한 소홀한 수사(참여자 4) 등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들은 연쇄 살인범 유명철 사건을 예로 들면서 자신들은 국가 공권력의 보호장치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로 인해 고도의 위험을 부담하는 성매매 탈출보다는 현실안주를 택하려고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자본재로서의 몸

‘반동형성에 의해 만들어진 인생각본’과 ‘불안에 기인한 숙명론적 체념’은 현재의 상황을 최선으로 여기게 하는 마음상태를 주조한다. 다음 차례는 현재를 지속 가능케 할 수 있는 도구를 찾아야 하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몸’이 가장 최고의 자본재임을 경험에 의해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본재로서의 몸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는 ‘자신의 몸에 의존한 성매매가 유일한 수단이자 대안’이라는 것과 둘째는 ‘여자의 몸은 다른 자본재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는 인식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이 같은 인식을 하게 된 배경에는 모든 사회적 관계를 금전의 교환관계로 환원하는 물상화(物象化)된 세계관이 있지만 성적 매력을 여자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여기고 부추기는 작금의 친민자본주의 풍조와도 무관하지 않다. 호이การ์ด(Hoigard)와 핀스타드(Finstad)는 집단적인 문화경험 혹은 집단적 문화로의 통합으로 10대 여성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과정을 설명했는데 여성들은 이미 형성된 집단문화, 즉 여성의 성이나 몸을 상품적 가치로 활용하는 사회문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몸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자기전환과정을 거친 후에 자연스럽게 성매매로 빠져든다(김은실, 2001, 재인용)고 했다. 본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몸을 자본재로 인식하는 과정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치모만 겨우 가린 전라의 몸을 공개하여 인기와 부를 얻는 일부 연예인들과 자신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왜 자신들만 비판받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원흉으로 치부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는 사회의 객관적 조건에 의해 행위자는 이에 구조화되어 버린다는 부르디외(Bourdieu, 1930)의 아비투스(habitus) 개념과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포주와의 공생모델

자신들의 몸을 자본재로서 인식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자본재가 가장 잘 작동할 수 있

는 환경으로서 포주와의 공생환경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포주와 성매매 여성과의 관계는 일방적 착취관계라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이를 공생관계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 관계는 심리, 정서적 유착과정과 현실적 안전을 위한 교환행위를 거쳐 경제적 협업관계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단순히 의리나 정리로서 맺어진 인간관계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심리, 정서적 유착은 환경의 압력에 의한 무력감→ 현실순응→ 유착관계로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 포주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한다. 처음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들은 -자외든 타외든- 포주와 갈등, 대립 관계를 형성한다. 원망이나 증오의 감정을 대부분 갖고 있다. 그러나 곧 이것이 자기의 현실임을 깨닫고 순응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 포주가 good father/good mother의 가면을 쓰고 등장한다. 가족의 형사문제 해결(참여자 3), 대리복수(참여자 1), 옥바라지(참여자 8) 등을 해준다.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지닌 포주는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로 다가선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연구참여자와 포주는 의사가족관계를 형성하며 강한 심리, 정서적 유착관계를 맺게 된다.

심리, 정서적 유착과 교환행위를 통해 연구참여자와 포주는 굳건한 경제적 분업 체계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 분업은 단독 성매매 행위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보장한다. 단독 성매매시 성매수자를 찾을 방법도 마땅치 않고 또한 찾는다 해도 그 수는 적다. 하지만 포주가 구축한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하면 쉽사리 성매수자를 끌어 모을 수 있다. 이들은 하루에 한사람의 성매수자를 찾아 그로부터 10만원의 대가를 받는 것보다는 포주의 자원을 통해 네 사람의 성매수자에게 40만원을 받아 그중 20만원을 자기 몫으로 받는 것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단위 노동당 산출은 떨어지지만 이들은 총액의 개념에 더 치중한다. “식당도 테이블당 회전율이 높아야 되듯이 우리도 회전율이 높아야 된다”(참여자 4)는 진술은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인간을 타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폭력(Barry, 1995)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간을 물체로 환원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자기 몸에 대한 배려보다는 몸이 상품으로 팔릴 수 있을 때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연구참여자들의 몸은 자본이고 자본은 최적의 투자적소를 고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집단 성매매 지대에 머무르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성매매 행위를 지속하려고 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총 46개의 개념이 도출되었고, 이 개념들은 「사후보호에 대한 회의적 시각」, 「피해의식」, 「여성정책결정권자들에 대한 반감」,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추구」, 「포주와의 심리·정서적 유착」,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연합」, 「통제와 위험경감의 교환」, 「마지막 생존 수단인 몸에 대한 집착」, 「물상화된 관계」, 「과거에 얽매임」으로 결집되었고 이를 개인적/심리적, 구조적/정책적 차원, 그리고 대상에 따라 성매매 당사자, 일반인/성매수자, 중간알선자(포주), 행정/정책관련자, 정책/서비스 문제 영역으로 범주화했다. 이러한 범주들

을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어 해석한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탈성매매 저해요인의 개인적 요인으로는 첫째, 반동형성에 의해 만들어진 인생각본, 둘째, 불안에 기인한宿命론적 체념으로 나타났으며, 구조적 요인으로는 첫째,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둘째, 자본재로서의 몸, 셋째, 포주와의 공생 모델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분석과 해석에 근거하여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신뢰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도 완벽한 보호체계의 수립이다. 연구 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포주의 집요한 추적과 보복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불안심리가 아니라 경험에 의해 몸에 배인 체감불안이다. 성매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데 더욱이 탈출 후에 자신들이 보호받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면 탈출하기가 지극히 힘들 것이다. 이들에게 자신들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과 여성계가 협력체계를 이루어 「성매매 탈출 여성 보호·지원위원회(가칭)」 같은 가시적인 상설기구를 만들어 성매매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여성과 탈출한 여성들에게 지속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할 것이다.

둘째,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집약적이고 개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다. 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성매매 여성들은 그들만의 특수한 처지와 경험으로 인해 독특한 심리, 정서적 상태에 있다. 이런 클라이언트들에게 일반적인 지지, 중재서비스는 효과가 적을 것이다. 억압자와 심리, 정서적 유착을 보이고 더 나아가 연합을 하는 경우 하나만 보더라도 이들에게는 다른 관점과 실천기술로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매매 탈출을 조장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개입적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다.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세상으로 귀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자신에 대한 모멸감, 환경적 압력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좌절하고 그 반작용으로 스스로를 성매매 지대에 가두었다. 이들의 의지를 촉발시킬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지원제도는 성매매에서 탈출한 여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들을 철저히 분리하여 차별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집단 성매매 지대 내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머물러 있는 여성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없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형성된 성매매 여성들의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을 것이다. 성매매에서 탈출한 여성 못지않게 탈출하지 못한 여성들의 탈출을 용이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지원과 중재가 필요하다. 성매매 탈출 여성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탈출하지 못하는 여성들에 대한 개입적 지원도 실시해야만 할 것이다.

넷째, 양성평등을 실제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사회 각 영역에서의 교육확대다. 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참여자들은 자신의 몸을 최상의 자본재로 인식하고 있다. 분석결과 이는 성적매력을 여자의 본질이자 경쟁력으로 여기고 이를 조장하는 집단문화에 의해 형성되었는데 이 배후에는 남성중심의 가치관과 제도, 관습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남성위주의 문화제도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의 확보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성매매 여성과 포주와의 공생모델을 파괴할 수 있는 수요제한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이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핵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성매매 여성과 포주는 강력

한 공생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모델은 심리, 정서적 유착은 물론 경제적 이익을 위한 연합을 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깨트리지 않고는 성매매의 근절은 물론 보호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고 있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착취와 인권유린, 신체, 정서적 학대를 막을 수 없다. 이 공생모델은 집단 성매매 지대를 폐쇄하거나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기존의 공급 규제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 정부에 의해 공급이 규제되면 일종의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는 암시장 구조가 생겨나게 된다. 이는 높은 수익 창출을 보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이나 포주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고수익을 올리려 한다. 이러한 구조는 마약시장의 구조와도 동일하다. 공급규제보다는 수요근절이나 제한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방법은 다양한 연령, 성적취향, 가치관 등을 가진 수많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수자를 처벌하는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사회 전체의 윤리문제로 귀착된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 성매매 근절이 사회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정책수립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일보. 2004. 12. 24.
 경향신문. 2004. 12. 28.
 내일신문. 2004. 11. 9.
 동아일보. 2004. 10. 21.
 _____ . 2004. 12. 21.
 세계일보. 2004. 11. 5.
 YTN TV. 2004. 12. 21.
 환경비즈니스. 2004. 11. 7.
 헤럴드경제. 2004. 12. 23.
 고선영·양종희·이수정. 2004. “성폭력 범죄의 원인과 개입전략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117-147.
 권혜택. 2004. “우리나라 매매춘의 실태와 사회복지 지원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국정홍보원. 2004. 『국정브리핑』.
 김윤옥·김성혜·김은경·신경숙·신경일·정명화·허승희·황희숙. 2001. 『교육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과 설계』. 서울: 문음사.
 김용숙·주미경 역, 2000. 남성 지배. Bourdieu, P. 1930. *Domination Masculine*. 서울: 동문선.
 김은경. 2004. 『한국의 성매매 현황과 형사법적 대응실태: 새로운 법적대책의 모색』. 서울: 도서출판 사람생각.
 김은실. 2001.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서울: 또 하나의 문화.
 김현숙. 2005. “성매매 피해여성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혜권·김명소. 2001. “청소년 매매춘의 현황 파악, 원인규명 및 예방책 제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 43-59.

- 변화순. 2005. 정책포럼: 정부의 성매매방지정책 토론을 위한 발제. 한국행정연구원.
- 변화순·황정임. 1998.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변화순·황정임·허나윤·최은영. 2002. 『탈성매매를 도울 수 있는 사회복지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여성부.
- 송경식. 2003. 대한민국 헌법1조. (주)한맥영화.
- 송관재·이재창·홍영오. 2001.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및 자존감에 관한 연구: 지체장애인과 윤락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 119-137.
- 심희기. 2002. “청소년보호법과 성매매방지”. 『형사정책』 14: 75-103.
- 여성부. 2002. 성산업규모와 성매매 실태에 관한 전국조사.
- 유은주. 2005. “성매매 청소년의 경험과정 연구: 근거이론적 접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재. 1999. “매춘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그에 대한 형사정책적 입장”. 『형사정책연구』 10: 161-186.
- 이정옥. 2004. “여성인권의 글로벌 스탠더드와 성매매 종사 여성의 인간 안보: 한국기지촌 여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0: 195-228.
- 이호용. 2005. “성매매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법정정책적 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 11-34.
- 전대양. 2000. “신종 10대 매매춘의 실상과 대책: 원조교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1: 179-214.
- 정규석·조정자·유순화. 2003.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다체계 모델 검증”. 『청소년학연구』 10: 239-259.
- 정진경·양계민. 2003. “성매매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인과 관련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 53-76.
- 조국. 2003.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15: 255-289.
- 천진호. 2002. “성착취와 성착취형 인신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13: 151-191.
- 최병일. 2004.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주영. 2002. 성매매는 범죄인가? 『시대와 철학』 13: 325-353.
- 하태영. 2002. “법사회적 관점에서 본 매춘에 관한 연구: 매춘정책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4: 453-486.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 허경미. 2005. “성인직적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성매매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 35-64.
- Barry, K. 1995.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Bell, S. 1994. *Reading, Writing and Rewriting the Prostitute Body*.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 Denzin, N. K. 1978.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str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2nd ed.). New York: McGraw-Hill.
- Goetz, J. P., and M. D. LeCompte. 1984. *Ethnography and Qualitative Design Education*

Research. London: Academic Press, Inc.

Lincoln, Y. S., and E. G. Guba.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lif: Sage Publication, Inc.

Schwandt, T. A. 2001. *Dictionary of Qualitative Inquiry*(2nd ed.). Sage.

Simon, C. P., and A. D. Witte. 1982. *Beating the System: The Underproud Economy*. Boston: Auburn House Publishing Company.

A Study on the Factors Obstructing Prostitutes' Escape from Prostitution

Lee, Keun-Moo
(Sungkyunkwan University)

Yu, Eun-Ju
(Wonkwang Digital University)

Since enforcement of the anti-prostitution law, in spite of systematic setting helping escape prostitution of the women who engage in prostitution that they have had the will lasting prostitution.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devise intervention plan helping their escape prostitution and return to social by examining individual and structural factor obstructing their escape prostitution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 and text. And these were analysed according to coding, constitution of concept, matching, construction of explanation on the phenomenon. The nine women who engaging in prostitution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the data analysis, 46 concepts and 10 categories were generated. By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and structural factor, the outcomes of an interpretation were as follows: The cause obstructing Prostitutes' escape prostitution were (1) distrust on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2) life-script was made by reaction-formation, (3) predestined resignation caused by anxiety, (4) body as capital goods, and (5) the commensal model with pimp.

Based on this result, we proposed practical and political alternative plans for prostitutes.

Key words: Prostitute, escape prostitution, matching, reaction-formation, life-script.

[논문접수일 2005. 8. 11. 게재확정일 2005. 11. 17.]